쌀 생산량 10만t 감소 '시름'

전남 대풍이라더니 되레 줄어
수확기 잦은 비 수발아 발생 때문
농협 전남본부, 피해 조사 들어가

전남지역 올해 쌀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확기 잦은 비로 인한 수발아(穗發芽·이삭에서 싹이 트는 것) 때문이다.

20일 농협 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수발아 피해 면적은 지난 14일 현재 고흥 10524㏊, 함평 1120㏊, 순천 500㏊, 영암 197㏊, 영광 152㏊ 등 모두 3786㏊로 잠정 집계됐다.

수발아는 이삭이 난 후 25~35일이 지나고, 종자 중량의 25% 이상의 수분과 호흡에 필요한 산소, 낮 기온 25도 이상 온도가 유지되면 발생한다. 올해는 추석을 전후에 비가 온 뒤 낮 기온 25도 이상 날이 많아 수발아가 많이 발생했다는 게 농협 측 설명이다.

농협 전남본부 조기영 양곡 담당은 "수발아 현상을 보이는 쌀은 눈이 노랗게 변해 도정과정에서 깨지기 일쑤여서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협 전남본부가 일부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도정률을 조사한 결과, 66%가량으로 지난해 70% 초중반 보다 줄었다. 이처럼 도정률이 줄다 보니 쌀생산량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영 담당은 "전남지역 지난해 쌀 생산량은 86만7t이었다"며 "올해 쌀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4% 줄어들어 쌀 생산량을 82만t으로 예상했는데 수발아 때문에 70만t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대풍을 예상했는데 뜻하지 않은 수발아로 인해 농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전했다. 이같은 쌀 농가의 고충에 대해 정부는 수발아 피해를 본 벼를 사들이기로 하고 매입 규모 등 결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매입량과 가격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해 82만여t을 기대한 전남지역 벼수확량이 수발아현상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일 오후 나주 금천의 한 논에서 농민이 컴바인을 이용해 벼수확에 한창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햅쌀 8만4천t 매입 '안도'

전남도 이달말부터…연내 마무리
조곡 40㎏ 포대당 4만5천원 지급
쌀값 조사 결과 따라 차액 정산

전남도는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16년산 쌀 시장격리 물량(조곡) 8만4000여t을 10월 말부터 매입,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국 매입량(34만여t)의 24.6% 규모다.

전남도는 20일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 소득 유지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내 수요 초과물량에 대해 시장격리 매입을 해주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때 건의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량은 수확기 예상 생산량을 적용한 잠정 물량이며, 앞으로 실수확량이 확정 발표되는 11월 중순께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장격리 매입 물량은 지난 9월 시군에 배정한 공공비축미 12만3000t 매입과 함께 세부 일정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 가격은 공공비축미와 동일하게 우선지급금으로 조곡 40㎏ 포대당 4만5000원을 매입 시점에 지급하고, 수확기(11~12월)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께 차액을 정산해 지급한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수확기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과 농협RPC 자체 매입 등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며 "또한 농가 소득 유지를 위해 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회의원 손발 묶는 김영란법

'쪽지 예산' 법 저촉 지역예산 확보 비상…티켓 일괄구매 공연관람도 안돼

기획재정부가 이른바 '쪽지예산' 관행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사 막판에 지역구의 민원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는 '쪽지예산'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쪽지예산이 부정청탁에 해당해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며 이를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당장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는 했지만,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한 의원은 20일 "각 부처와 기재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예산을 챙기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쪽지예산을 막는다면 커다란 수단을 한 가지 잃게 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 의원들은 쪽지예산을 공식적인 예산 심의 과정에 포함하는 방식을 선택할 생각이다. 그럼에도,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 의원들이 신중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커서 지역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쪽지 예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이어 청탁금지법까지 시행되면서 이중삼중의 규제에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은 최근 교문위 소속 의원 등을 초청해 공연을 관람하기로 하고 티켓을 일괄 구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티켓을 일괄 구매해 공짜로 주는 것은 동료 의원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의원들도 티켓 제공을 원하지 않아 일괄 구매 계획을 접었다. 좌석에 따라 4만~8만원인 관람료에 부담을 느낀 의원들이 "내 돈으로 (티켓을 구입해) 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속도낸다

이천-통영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 5곳과 협약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시가 경기도 이천(공예), 서울(디자인), 부산(영화), 경남 통영(음악), 전주(음식) 등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된 국내 5개 도시와 협력사업 발굴에 나선다. 광주시는 20일 이들 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날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김승수 전주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홍성화 부산시 국제관계대사, 이근 서울디자인재단 대표는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포럼'이 열리고 있는 전주에서 협력사업 개발, 창의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학술행사, 후보도시와의 교류 및 지원 등 국내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협약식 후 조티 오사그라하(Jyoti hosagrahar) 유네스코 창의국장과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아트 창의포럼 등 개최 시 분야별 전문가 교류 등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박병호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의도시 간 비전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 광주시와 5개 창의도시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6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포럼'은 21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시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네스코 본부 대표와 세계음식창의도시 대표단, 음식창의도시 주한대사, 국내 창의도시 및 창의도시후보도시 대표, 교수 및 전문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계자 등 30여 개 도시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채희종기자 chae@

신안 갯벌 천일염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는 '신안 갯벌 천일염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4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안 갯벌 천일염업은 염전으로 끌어들인 바닷물을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술과 기법이 필요한 전통 어업법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해수를 끓여 소금을 생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고려 문종 때는 소금을 끓이는 가마솥을 나라에서 관리하고 소금 전매제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는 등 1000 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천일염전의 경우 1946년 신안군 비금면에 조성된 시험염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신안군을 중심으로 서남해안에 천일염전이 확산했다.

/연합뉴스

등록번호: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히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피해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청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247-7700 062)372-9777
※광주·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혈당조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ATP10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ATP10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을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쳐나는 포도당을 60조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 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당뇨특허 2건 등록!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농성동 무등산타워
10층 상가매매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뷔페식당 · 사무실 · 병원 등 최적입지
▶수의계약진행
감정가 : 32억원
매매가 : 22억원
▶전용면적 : 1,070㎡(10층 전체)
문의 국제자산신탁 02-5202-3087
완도금일수협 062-364-2018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시(詩) 낭송 감성 스피치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062)222-2255, HP.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